

저장된 페이지 보기

‘기업매매’ 젊은 꿈들이 몰린다

[한겨레] 1996-04-15 09면 경제 기획, 연재 2946자

◎한국 매수·합병시장 30대 법률·회계·기획 엘리트 열풍/‘한국 M&A’ 선두... 인수 전문가 18명 솜씨 발휘/국내 최대 법률회사 ‘김&장’도 10명 팀 꾸려 입성/성공사례 양산하며 번창가도... 시장 급팽창 기대기업 세일즈 시장에 꿈을 쫓는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1년여 사이에 빠른 속도로 엘리트 전문가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차례 거센 열풍이 지나갔지만, 증권금융산업의 후방인 한국에선 기업 세일즈가 이제 30대 젊은이들의 ‘꿈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세일즈 시장을 맨 앞에서 끌고 있는 전문가집단은 창업 1년 된 ‘한국M&A’란 작은 회사다. 직원은 모두 23명으로 18명이 자금 기획 법률 회계 신용평가 쪽의 전문가들이다.

대표이사는 35살의 권성문씨. 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경영학석사를 땀으며, 삼성물산과 동부그룹 등에서 기업 인수합병 실전 경험을 쌓았다. 지난 한햇동안 8개 상장업체의 기업 세일즈를 성사 시키면서 유명 인사가 된 그는 기업인모임의 단골 연사다.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출신의 채운섭(39) 부장과 박광호(38) 부장은 한농 인수작업을 맡았던 실무 베테랑이며, 조효승(30) 차장은 얼마 전까지 한솔그룹의 무지막지한 기업 인수를 기획하고 성사시켰던 숨은 주인공이다.

권 사장은 “고도의 경험과 전문인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전문회사란 점이 엘리트 인력을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이라며 “대기업의 기업인수 전문가 5~6명이 한달 안에 또 합류하기로 돼 있다”고 귀띔했다.

○20대 여성들도 합류

지난해 9월 세종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최고령자’ 전병현(44) 전무는 기업 사고 팔기 중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법률적 갈등을 다룬다. 고려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하버드대 법대를 나온 그는 몇년 동안 미국 뉴욕주의 3개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세일즈 경험을 닦았다.

이밖에 한국M&A팀에는 3명의 30대 회계사가 뛰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일본통으로 고려대를 수석 입학·졸업한 이광재 이사와 이종민 부장, 신호철 차장이 회계사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0대의 여성 전문가 백지혜(27) 대리와 김미희(29) 대리는 기업 신용평가와 마케팅 조사 등 지원 구실을 맡고 있다.

조효승 차장은 “일의 성격상 대기업 총수나 측근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때로는 사주에게 기업 매각을 설득하려다 가 문전박대당하는 일도 많다”며 ‘힘든 일과’를 소개했다.

한국M&A는 최근 상장업체인 영우통상 직접 인수를 계기로 새삼 각광을 받았다. 기업 인수합병 전문회사가 상장 업체를 직접 인수·경영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권 사장은 “30대에 속하는 재벌그룹으로부터도 계열사를 팔아달 라는 주문을 3개 정도 받아놓았다”고 말했다. 재벌그룹 스스로 문어발 계열사를 잘라내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성장 주력산업 육성에 집중하려는 자연스런 업종 전문화 움직임이 이미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M&A는 또 미국과 홍콩의 전문회사 두 곳과 올해중 합작·제휴관계를 맺어,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진 외국 업체 자문업무도 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이론·실무

기업 세일즈 시장에 간판을 내건 다른 전문업체로는 이스턴M&A 유나이티드M&A 프론티어M&A 김성진M&A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아직까지 덩치 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한국종합금융과 서울증권 현대증권 엘지증권 등이 막강한 증권사 정보력을 바탕으로 기업 세일즈 시장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올 들어 부쩍 기업 세일즈 사업에 열을 올리는 또 하나의 전문가집단으로는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인 ‘김&장’을 빼 놓을 수 없다. 김&장은 최근 신원그룹의 제일물산 인수건을 맡았으며, 한국카프로락탐 분쟁 때는 코오롱 편에서 싸움의 주역 노릇을 했다. 험악한 싸움으로 번진 두 사건에서 김&장은 특별팀을 가동했고, 의뢰자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김&장은 지난해 동부그룹의 여러차례 기업 인수에도 부분적으로 관여했고, 한솔그룹이 상장업체들을 사들일 때도 일부 법률자문을 해주었다.

김&장은 여세를 몰아 2000년까지 회사 매출의 상당액 상황에 따라서는 총매출의 절반을 기업 세일즈 시장에서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부의 M&A팀(팀장 정계성 변호사)에는 이미 10여명의 전문변호사들이 뛰고 있다. 하버드대 출신의 박준(42)·박병무(34)·이경훈(36) 변호사와 미국 듀크대를 나온 이민교(39) 변호사 등 하나같이 미국에서 이론과 실무를 익힌 실력자들이다.